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7 영국 런던 내셔널갤러리

모두를 위한 미술관…대가들 작품 연중 무료관람

정부지원·후원·기부금 운영
서양미술 작품 2천여점 소장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자랑

파리=정상필 특파원

영국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지역(City of Westminster)은 버킹엄 궁전, 세인트 제임스 궁전, 국회의사당, 각종 정부 관공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이 위치한 영국의 정치적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지역 내의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은 영국 '정치 일번지'라는 상징이 다소 어색하게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이 넘쳐 나는 곳이다.

그 이유는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과 함께 영국 최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4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내셔널 갤러리는 중세 종교화에서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회화까지 125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제작된 2천여점의 서양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영국의 다른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무료라고 해서 소장품까지 볼품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민을 위한 미술관

1824년 영국 의회가 은행가 존 앵거스타인의 유품이던 회화 38점을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내셔널 갤러리의 시작이다. 비슷한 시기에 조지 버몬트 경도 자신의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했다. 초기에는 작품들이 앵거스타인의 저택에 전시되다 1838년 트라팔가 광장 인근에 지금의 미술관 건물로 옮겨지게 된다.

영국에서의 미술관 설립은 다분히 교육적 목적에서다.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미술관에 방문해 명화를 감상하고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은 미술학도에서 모든 대중에게 확대돼 지금도 내셔널 갤러리의 역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교육으로 꼽을 정도다. 위대한 작품들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셔널 갤러리 내에서 실시되는 특별전시회를 제외한 상설 전시장은 1년 내내 무료 입장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국민이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내셔널 갤러리에 영국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엄청나다. 지난해 발간된 연례보고서(2007년4월~2008년3월)에 따르면 내셔널 갤러리의 연간 수입 4천70만 파운드(약 762억원)중 절반이 훨씬 넘는 2천560만 파운드(약 479억원)가 정부지원금이었다. 후원과 기부금 수익도 870만 파운드(약 163억원)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방대한 컬렉션과 철저한 관리

앵거스타인의 소장품 38점에서 시작된 내셔널 갤러리 컬렉션은 현재 2천300여점으로 늘었다. 미술관 지출의 30% 이상이 작품 구입에 쓰이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1천80만 파운드(약 202억원)를 작품 구입에 지출했다. 내셔널 갤러리에는 흔치 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드로잉 작품 '성모자와 성 안나, 세례 요한', 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 반 고흐의 '해바라기' 등이 전시돼 있다.

미술관 측이 작품 구입보다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보존 및 관리다. 2007년 지출액이 작품 구입비보다 많은 1천170만 파운드(약 220억원)에 달했다. 닳은 회화를 복원하고, 회화에 가장 어울리는 액자를 제작하는 일 등에 쓰인 돈이다. 미술관 측은 영국 국민 소유인 컬렉션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미술관의 가장 큰 임무이자 역할로 못박았다. 작품 보존 노하우를 담아 매년 '내셔널 갤러리 기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좋은 작품을 모아 놓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07년 내셔널 갤러리의 입장객 수는 415만명으로 고대 유물 등이 전시된 대영박물관(541만명), 현대미술 전시관인 테이트 모던 갤러리(519만명)에 이어 영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 중에서는 바티칸 박물관(431만명)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찾은 곳이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국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미술관 설립의 목적인 만큼 내셔널 갤러리가 교육에 들이는 공은 상당하다. 연간 지출액의 5% 가량을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 2007년에는 140만 파운드(약 26억원)를 썼다.

내셔널 갤러리의 교육 프로그램은 3세 아동에서 성인까지 소화한다. 미술관을 둘러보며 미술 사조와 회화, 화가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의 단순한 교육에서 정해진 작품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미술 교사들을 위한 전문 연수가 이뤄지는가 하면, 초보자들을 위해 서양미술의 기본이 되는 신화와 종교에 대한 강의도 진행된다.

5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스토리를 만들어 동화를 들려주듯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회화를 설명하고, 5~11세 어린이들은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미술과 친해지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체험활동과 어른들을 위한 강의나 토론, 가이드 프로그램 등이 매일 시간대별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camus@kwangju.co.kr

영국 런던 중심에 위치한 트라팔가 광장과 내셔널 갤러리. 1824년 설립된 내셔널 갤러리에는 1250년부터 1900년 사이 서양미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큐레이터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인 드가의 회화 앞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교육적 기능은 내셔널 갤러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The National Gallery 제공〉

엘리자베스서 다이애너 비까지 10만여점 소장

■영국 국립 초상화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인근에는 미술관 관람객들이 놓칠 수 없는, 흥미로운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초상화만을 모아 놓은 영국 국립 초상화미술관(The National Portrait Gallery)이다. 내셔널 갤러리 정문에서 미술관 건물을 따라 동쪽으로 50여m 가다 보면 초상화미술관 입구가 나온다.

초상화는 서양미술의 가장 흔한 주제 중 하나다. 많은 화가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의 얼굴을 그렸으며, 특히 사진 발명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왕이나 귀족들은 화가에게 자신의 얼굴을 그리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후세에 남겼다.

1856년에 문을 연 영국 국립 초상화미술관에는 튜더 왕조가 영국을 지배하던 16세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명인들의 회화를 중심으로, 사진, 캐러커쳐, 데생, 조각 등 10만여점의 '얼굴'이 소장돼 있다. 이 중 1천여점이 3개 층, 44개 방에 전시돼 있다. 퀸 엘리자베스 1세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妃)까지, 셰익스피어에서 폴 메카트니까지 왕족, 정치인, 군인, 문인, 지식인, 연예인 등 영국 역사에 남은, 또는 남을 인물들의 면면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다.

런던의 영국 국립 초상화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퀸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감상하고 있다. 이 곳에는 16~21세기 영국 유명인들의 초상화, 사진, 조각 등 1천여점이 전시돼 있다.